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에스겔 —

김동혁*

이 글은 에스겔서 본문 다섯 곳을 골라 역본들을 살펴보아 『새한글』 번역의 특징들이 어떠한지를 논의합니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원문과 『새한글』을 비롯하여 우리말 공인 역본(『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과 영어 역본 둘(ESV, NET), 독어 역본 셋(ZB, LB, BB)의 번역을 제시합니다. 둘째, 『새한글』 번역의 새로운 점을 관찰합니다. 셋째, 『새한글』 번역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한글』 본문이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를 간략히 언급합니다. 본문 다섯 곳은 1:1-3; 12:10; 13:16; 14:6; 43:7인데, 각 본문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징을 소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소제목으로 삼은 『새한글』 번역의 주요 특징은 (1) 전자매체에 적합한 짧은 문장(1:1-3), (2) 3중 인용을 나타내는 낫표(「 」) 사용(12:10), (3) 원문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번역(13:16), (4) 히브리어의 어순과 느낌을 살리는 번역(14:6), (5) 타당한 다른 번역 가능성의 제시(43:7)입니다.

* Yal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donghyukk@yonsei.ac.kr.

1. 전자매체에 적합한 짧은 문장(1:1-3)

1.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וְיָהִי בָּשָׁלַשִּׁים שָׁנָה בְּרֵבִיעִי בְּחִמְשָׁה לְחִדְשׁ וְאַנְגִּי בְּתוֹךְ-הַגּוֹלָה
עַל-גּוֹרָבֶר נְפִתְחָה חַשְׁמִים וְאַרְאָה מְרָאֹת אֶלְהִים: 2 בְּחִמְשָׁה
לְחִדְשׁ הִיא הַשְׁנָה הַחֲמִישִׁית לְלִלוֹת הַמֶּלֶךְ יוֹכִין: 3 הִיא הִיא
דְּבָרִתָּהּ אֶל-יְהוָקָאֵל בְּרִבְעִי הַכְּתָן בְּאָרֶץ כְּשָׂדִים
עַל-גּוֹרָבֶר וְתְּהִיא עַלְיוֹ שֶׁם יְהִי רָוחָה

『개역개정』

1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초닷새라 3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새번역』

1 때는 제 삼십년 넷째 달 오일이었다. 그 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 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 주신 환상을 보았다. 2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 온 지 오 년째가 되는 그 달 오일에, 3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 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공동개정』

1 삼십년 되던 사월 오일이었다. 그 때 나는 그발 강 가에서 포로들 속에 끼여 있다가 하늘이 열리며 나타나는 신비스런 광경의 발현을 보게 되었다. 2 그 달 오일은 바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오년째 되는 날이었다. 3 그 날 부지의 아들 예제키엘 사제가 바빌론의 그발 강 가에서 야훼의 말씀을 받았다. 거기에서 그는 야훼의 손에 잡혔던 것이다.

『새한글』

1 (예언자) 서른째 해 넷째 달 다섯째 날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사로잡혀 와 있는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발강 가였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나는 하나님이 보여 주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2 — 그 달 다섯째 날이었다. 그해는 여호야긴 임금이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3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고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부시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에게 내려온 것이다. 칼데아 사람들의 땅 그발강

가에서였다. 거기서 그에게 여호와의 손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ESV

1 In the thirtieth year, in the fourth month, on the fifth day of the month, as I was among the exiles by the Chebar canal, the heavens were opened, and I saw visions of God. 2 On the fifth day of the month (it was the fifth year of the exile of King Jehoiachin), 3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Ezekiel the priest, the son of Buzi,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by the Chebar canal,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him there.

NET²

1 In the thirtieth year, on the fifth day of the fourth month, while I was among the exiles at the Kebar River, the heavens opened and I saw a divine vision. 2 (On the fifth day of the month — it was the fifth year of King Jehoiachin's exile — 3 the Lord's message came to the priest Ezekiel the son of Buzi, at the Kebar River in the land of the Babylonians. The hand of the LORD came on him there.)

ZB

1 Und im dreissigsten Jahr, im vierten Monat, am Fünften des Monats, als ich unter den Verbannten am Fluss Kebar war, öffnete sich der Himmel, und ich sah göttliche Schauungen. 2 Am Fünften des Monats — es war das fünfte Jahr der Verbannung des Königs Jojachin — 3 er ging wahrhaftig das Wort des Herrn an Ezechiel, den Sohn des Busi, den Priester, im Land der Kasdäer, am Fluss Kebar, und dort kam die Hand des Herrn über ihn.

LB

1 Im dreißigsten Jahr am fünften Tage des vierten Monats, als ich inmitten der Weggefährten am Fluss Kebar war, tat sich der Himmel auf, und ich sah Erscheinungen Gottes. 2 Am fünften Tag des Monats — es war das fünfte Jahr, nachdem der König Jojachin gefangen weggeführt war —, 3 da geschah das Wort des Herrn zu Hesekiel, dem Sohn des Busi, dem Priester, im Lande der Chaldäer am Fluss Kebar. Dort kam die Hand des Herrn über ihn.

BB

1 Es war im dreißigsten Jahr, am fünften Tag des vierten Monats. Ich wohnte in Babylonien am Kanal Kebar, bei den Judäern, die dort in der Verbannung lebten. Da

öffnete sich der Himmel und Gott ließ mich Visionen sehen. 2 Es war das fünfte Jahr nach der Verbannung von König Joachin. Am fünften Tag des vierten Monats also 3 **kam das Wort des HERRN** zu Ezechiel, dem Sohn des Busi. Er war ein Priester und wohnte im Land der Babylonier am Kanal Kebar. Dort ergriff ihn die Hand des HERRN.

1.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문장의 수

9개의 역본 중 6개가 문장 2~4개로 본문을 번역했습니다(『개역개정』, 『새번역』, ESV, NET, ZB, LB). 반면, 『공동개정』은 5문장, BB는 7문장, 『새한글』은 10문장으로 본문을 번역했습니다. 『새한글』의 문장들이 가장 짧습니다.

(2) 화자 표기

1절에서 '(예언자)'라고 화자를 밝혀 주었는데, 이 말은 원문에 없는 말입니다.

(3) 존댓말 사용

1절을 존댓말로 번역하였습니다. 다른 한국어 역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와 독어 역본은 존댓말과 예사말을 구별하기 힘듭니다.

(4) 줄표(一) 사용

2-3절을 줄표 속에 넣었습니다. 다른 역본 중에서는 NET가 괄호를 써서 2-3절을 묶었습니다.

(5) 개별 표현

הָיָה בְּרִית־יְהוָה(하요 하야 드바르-아도나이)의 번역
‘여호와의 말씀이 … 특별히 임하고’(『개역개정』), ‘주님께서 … 특별히 말씀하셨으며’(『새번역』), ‘[에제키엘이] … 야훼의 말씀을 받았다’(『공동개정』),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고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새한글』).

1.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문장의 길이

『새한글』 에스겔 1:1-3을 다른 역본들과 비교할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특징은 문장이 단순하고 짧다는 점입니다. 1-3절의 문장 수가 『새한글』은

10개인 데 반해, 『개역개정』은 2개, 『새번역』은 4개, 『공동개정』은 5개, ESV와 ZB는 2개, NET와 LB는 3개입니다. 7개 문장으로 번역한 BB가 『새한글』과 비교될 만합니다. BB는 한 문장이 16단어를 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새한글』이 이 원칙을 차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물론 문장 수가 더 많은 『새한글』이 문장들이 더 짧습니다). 다른 역본들에 비해 『새한글』의 문장이 더 단순하고 더 간결하므로 독자는 『새한글』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은 또한 종이책보다 면적이 좁은 전자매체 화면에서도 장점을 발휘합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시작과 끝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2) 화자 표기

『새한글』의 과감한 시도 중 하나는 원문에 없는 화자, 청자, 말의 종류 등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 본문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예언자)’가 그런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한글』 예언서는 화자를 팔호 속에 적어 넣었습니다. 시편이나 아가 같은 책에서도 누가 한 말인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어떤 종류의 말인지를 본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예: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 하는 말’, ‘기도’, ‘혼잣말’ 등; 아가의 ‘여자’, ‘남자’, ‘무리’ 등). 기존 역본으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어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말이 예언자의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누구의 말인지를 알려 주는 것은 특히 성경을 많이 접해 보지 않은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용 속 인용 속 인용같이 인용이 다중으로 나오는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아래 2.와 4. 참조).

(3) 1절과 2-3절에서 시점의 차이

에스겔 1:1-3의 원문을 보면 1절의 시점과 2-3절의 시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일인칭 시점으로, 2-3절은 삼인칭 시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1절은 에스겔이 자신의 경험에 관해 쓴 문장들이고, 2-3절은 후대의 편집자가 에스겔에 관해 쓴 내용입니다. 위에 인용한 모든 영어와 독어 역본이 이 점을 보여 줍니다. 반면, 기존 한국어 역본 중에서는 『공동개정』만이 원문의 시점 변화를 보여 줍니다(1절: ‘나는 … 보게 되었다.’; 3절: ‘부지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가 … 그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시점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은 원문에 없는 ‘나’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제사장 나 에스겔’, ‘나 에스겔 제사장’). 말하자면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후대 편집의 혼적을 감추어 번역을 매끄럽게 만든 셈입니다. 이에 반해 『새한글』과 『공동개정』은 원문을 따라 번역을 함으로써 본문 속 시점 변화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특히 『새한글』은 시점 변화를 다양한 장치를 써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 줍니다. 위에서 『새한글』의 새로운 점으로 언급한 사항 중 ‘1.2.(3) 존댓말 사용’과 ‘1.2.(4) 줄표 사용’이 그런 장치입니다. 우선, 『새한글』의 1절과 2-3절에서 높임법이 달라서 1절은 존댓말로, 2-3절은 예사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임법이 바뀌는 것을 보면, 독자는 1절과 2-3절이 한 사람이 쭉 쓴 것이 아님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새한글』 예언서에서는 예언자가 직접 하는 말(일인칭 시점으로 표현된 말)은 존댓말로, 편집자의 말은 예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새한글』 속에서 예언자들은 청중을 존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한국어로 예언했다면 청중에게 존댓말을 썼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상상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이 입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점은 더욱 온당해집니다. 둘째, 『새한글』에서 2-3절을 줄표(—)로 감싼 것도 줄표 속 편집자의 말과 줄표 밖 에스겔의 말을 확연하게 구별해 줍니다. 『새한글』과 비슷하게 NET는 2-3절을 괄호 속에 넣었는데, 괄호보다는 줄표가 낫습니다. 괄호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덜 중요하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사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예언자에게 내려온 사건은 에스겔에게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새한글』에서 명사구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고 내려오는 일’)은 사건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새번역』에서 동사구를 사용하여 ‘특별히 말씀하셨으며’라고 번역한 것은 한국어의 특징을 잘 살린 번역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사건을 서술할 때 명사구보다 동사구나 형용사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경험한 사건의 구체성과 실재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새한글』이나 『개역개정』의 명사구가 나아 보입니다. 『공동개정』의 경우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내려오는 사건이 명사구로 표현돼 있긴 하지만(‘야훼의 말씀을 받았다’), 주어가 ‘야훼의 말씀’이 아니라 ‘에제키엘 사제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동성이 덜 강조됩니다. 『개역개정』과 『새한글』은 각각 ‘특별히 임하고’와 ‘내려오고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번역에서 서술어(‘임하다’, ‘내려오다’)가 강조되었는데, 서로 다른 방식이 쓰였습니다. 『개역개정』은 ‘특별히’라는 부사로, 『새한글』은 동사를 반복함으로 서술어가 강조되었습니다. 『새한글』의 방식은 같은 동사를 반복함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용법을 재현해 줍니다.

1.4. 『새한글』 에스겔 1:1-3의 가르침

(1) 2-3절은 에스겔이 쓴 말이 아니라 에스겔의 말을 보존하기 원했던 사람 — 이 사람을 에스겔의 ‘제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 이 후대에 덧붙인 말입니다. 후대의 ‘제자’가 에스겔의 책을 소중하게 여겼고 설명을 덧붙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속성을 응변적으로 보여 줍니다. 에스겔의 말이 후대에 의미가 없었다면 이 ‘제자’가 에스겔의 책을 수고로이 베끼고 보존하고 확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여 년 전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온갖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제대로 채비를 갖추어 자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딤후 3:16-17[『새한글』]).

(2)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고 내려오는 일’은 형식적으론 종교적인 체험이었지만 에스겔 자신에겐 너무나도 실제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려오는’ 것 같은 실감 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에스겔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48장에 걸친 긴긴 예언을 선포할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 강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 말씀을 읽는 이들과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2. 3중 인용을 나타내는 낫표(「 」) 사용(12:10)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אָמַר אֱלֹהִים כֹּה אָמַר אֱלֹהִי יְהוָה חִזְקִיאָה הַמְּנֻבָּח
בֵּירוּשָׁלָם וְכָל־בֵּית יִשְׂרָאֵל אֲשֶׁר־הַמֶּה בְּתוּכָם:

『개역개정』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목시라 하셨다 하고

『새번역』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 이 절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정조다’ 하여라.

『공동개정』	너는 이렇게 일러주어라. ‘주 야훼께서 이르신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수령 과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온 겨레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새한글』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예언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는 군주가 이 짐이다.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집안의 사람들이 짐이다.」”
ESV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This oracle concerns the prince in Jerusalem and all the house of Israel who are in it.’”
NET ²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he prince will raise this burden in Jerusalem, and all the house of Israel within it.’
ZB	Sprich zu ihnen: So spricht Gott der HERR: Der Fürst ist diese Last in Jerusalem und das ganze Haus Israel, alle, die bei ihnen sind.
LB	Sage zu ihnen: So spricht Gott der HERR: Diese Last trifft den Fürsten zu Jerusalem und das ganze Haus Israel, das dort wohnt.
BB	Sag zu ihnen: »So spricht Gott, der HERR! Dieses Wort richtet sich an den Herrschер in Jerusalem und an alle Israeliten in dieser Stadt.«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낫표(「 」) 사용

위 본문은 인용 속 인용 속 인용, 즉 3중 인용의 예입니다. 『새한글』은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속 3수준 피인용문을 낫표로 묶었습니다. 큰따옴표로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용되고(“[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작은따옴표로 예언자가 백성에게 말해야 할 말이 인용되고(‘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낫표로 예언자가 백성에게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됩니다(「예루살렘에서는 … 짐이다 … 이스라엘 온 집안의 사람들이 짐이다.」).

(2) 화자 표기

1.에서 이미 보았듯이 『새한글』은 다중 인용에서 화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위 본문에서는 ‘(예언자)’와 ‘(하나님)’을 넣어 줌으로써 뒤따르는 말이

누구의 말인지를 보여 줍니다.

(3) 문장의 구조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인용되는 문장이 인용하는 문장의 중간에 끼워져 있습니다. 즉, 인용을 하는 안은문장이 피인용문인 안긴문장으로 잘려 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인용하는 문장이 잘려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문장의 구조를 도식화해 보았습니다(『개역개정』에 따옴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역개정』

- [1수준]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 [2수준] ‘주 여호와의 말씀에
- [3수준] 「이것은 … 묵시라」
- [2수준] 하셨다
- [1수준] 하고

『새한글』

- [1수준]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 [2수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3수준] 「예루살렘에서는 군주가 이 짐이다. … 짐이다.」”

(4) 개별 표현

① 왕(나시)의 번역

‘왕’(『개역개정』, 『새번역』), ‘수령’(『공동개정』), ‘군주’(『새한글』).

② 묵시(맞싸)의 번역

‘묵시’(『개역개정』), ‘짐, 징조’(『새번역』), ‘어떻게 될지’(『공동개정』), ‘신탁(oracle)’(ESV), ‘말씀’(BB), ‘짐’(『새한글』, NET, ZB).

2.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낫표 사용

『새한글』은 몇 가지 대담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3수준 인용을 나타낼 때 낫표(「 」)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3수준 이상의 인용은 예언서에서 흔하지만,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독어에도 3수준 이상의 인용문을 뚫는 따옴표는 없습니다. 그래도 서양 언어에서는 콜론(:)으로 3수준 인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SV, NET, ZB, LB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반면, 한

국어 어법에서는 문장을 콜론으로 종결하지 않으므로, 3수준 이상의 인용을 나타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용문을 종종 간접 인용으로 처리합니다. 위 역본들 중 『공동개정』이 그렇게 하였습니다(‘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수령과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온 겨레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개역개정』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3수준 이상의 인용문을 원문 그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장 부호가 없기 때문에 인용의 수준이 눈에 금방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새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3수준 피인용문(‘이 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이 예언자의 말처럼 읽힙니다. 『새한글』은 위에서 논의했듯 낚표를 씀으로써 3수준 인용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필자가 알기로 한국어 어법에서 3수준 이상의 피인용문을 묶는 따옴표를 고안한 것은 『새한글』이 최초입니다.

(2) 문장의 구조

『새한글』은 인용을 하는 안은문장이 잘려 있지 않습니다(위의 도식 참조). 그래서 인용 속 인용 속 인용이라는 구조를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어순도 원문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피인용문을 담는 문장들이 잘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נַשְׁבָּע(나시)

נַשְׁבָּע(나시, ‘군주’)와 מלך(멜렉, ‘임금, 왕’)은 의미의 일부를 공유하는 유의어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번역할 때도 서로 다른 낱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נַשְׁבָּע(나시)를 ‘왕’이나 ‘임금’ 등으로 번역한 기존 역본들과 달리, 『새한글』 구약은 נַשְׁבָּע(나시)를 ‘군주’, ‘우두머리’로 일관되게 번역하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 נַשְׁבָּע(나시)와 מלך(멜렉)을 서로 다르게 번역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는 מלך(멜렉)과 נַשְׁבָּע(나시)가 둘 다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둘 모두 37회). 그러므로 두 단어를 『새한글』이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은 독자에게 원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 것입니다.

(4) נַשְׁבָּע(맛싸)

BDB와 HAL/HALOT에서 보통 명사 נַשְׁבָּע(맛싸)는 두 표제어로 나뉘어 설명됩니다. 즉, נַשְׁבָּע₁(맛싸₁, ‘짐’)과 נַשְׁבָּע₂(맛싸₂, ‘선포, 신탁’)처럼 독립된 두 낱말로 취급된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낱말이 여러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두 낱말이 어근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두 낱말이 공유하는 어근은 נַשְׁבָּע(나사, ‘나르다, 짊어지다’)입니다. 따라서 만약 נַשְׁבָּע(맛싸)가 여러 의미를 가진 다의어라면 ‘짐’

이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확장되어 ‘선포, 신탁’이라는 추상적인 의미까지 떠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언자 입장에서는 짊어져야 할 ‘짐’,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한국어 역본이 대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여 번역한 것(『개역개정』의 ‘묵시’, 『새번역』의 ‘짐, 징조’, 『공동개정』의 의역 ‘어떻게 될지’)을 맛싸(맛싸)의 또 다른 의미 — 그러나 관련성 있는 의미 —로 번역한 것은 독자에게 원 낱말의 다채로움을 보여 주게 됩니다.

2.4. 『새한글』 에스겔 12:10의 가르침

(1) 『새한글』 에스겔 12:10에 따르면 나라의 지도자가 예루살렘에서 ‘부담’이 됩니다. 지도자라면 마땅히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모범적으로 앞장서야 할 텐데, 예루살렘의 군주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경천애인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 맛싸(맛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뜻함과 동시에 짊어져야 할 ‘짐’을 뜻한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리더부터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종’(약 1:1[『새한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많이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약 3:1[『새한글』])

3. 원문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번역(13:16)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읽겨 적기

BHS⁵

נְבִיאי יִשְׂרָאֵל הַנִּכְאִים אֶל־יְרוּשָׁלָם וְהַחֲזִים לְהַחְזֹן שָׁלָם וְאַיִן שָׁלָם נְאָמֵן אֶלְנִי יְהוָה:

『개역개정』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번역』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

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공동개정』 발현을 본답시고 보고는 무엇 하나 잘되는 것 없는데도 잘되어 간다고 하면서 그것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의 말이라고 전하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없어졌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새한글』 그들은 예루살렘을 두고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의 환상을 보았다는 예견자들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ESV the prophets of Israel who prophesied concerning Jerusalem and saw visions of peace for her, when there was no peace, declares the Lord God.

NET² those prophets of Israel who would prophesy about Jerusalem and would see visions of peace for it, when there was no peac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ZB die Propheten Israels, die für Jerusalem weissagen und für Jerusalem eine Friedensschauung schauen, und da ist kein Friede! Spruch Gottes des Herrn.

LB Das sind die Propheten Israels, die Jerusalem weissagen und predigen »Friede!«, wo doch kein Friede ist, spricht Gott der Herr.

BB So sind die Propheten Israels. Sie reden prophetisch über Jerusalem und schauen Visionen des Friedens für diese Stadt. Aber es gibt keinen Frieden. —So lautet der Ausspruch von Gott, dem Herrn.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본문의 구조

םִיחָזֶק(하호침)의 문장 속 역할을 보는 입장이 둘로 갈라집니다. 『새한글』과 『새번역』은 מִיחָזֶק(하호침)을 명사구로 보았습니다(각각 ‘예견자들’, ‘본 사람들’). 반면, 영어와 독어 역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역본은 מִיחָזֶק(하호침)을 관계절로 보았습니다. 『새한글』과 『새번역』에서 מִיחָזֶק(하호침)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대등한 그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그룹(‘예루살렘을 두고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의 환상을 보았다는 예견자들’)에 관한 것이 됩니다. 반면, 다른 역본들에서 이 본문 전체의 구조는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했으며 … 평화의 환상을 본 이

스라엘의 예언자들'(ESV)의 꼴을 띕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라는 한 명사구를 두 개의 관계절(‘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평화의 환상을 본’)이 꾸며 주는 것입니다. 『새한글』과 『새번역』만 비교해 보면 『새한글』은 ‘예견자들’이라는 전문 용어를 썼고 『새번역』은 ‘본 사람들’이라고 풀어서 썼습니다.

(2) 개별 표현

① נָבִיא(느비에)의 번역

‘선지자들’(『개역개정』), ‘예언자들’(『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

② נָבִיא(하호침)의 번역

‘보았다고 하는’(『개역개정』), ‘본 사람들’(『새번역』), ‘본답시고 보고는’(『공동개정』), ‘예견자들’(『새한글』).

③ אֱלֹהִים(느움 아도나이 엘로힘)의 번역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개역개정』),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새번역』),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공동개정』), ‘—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3.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נָבִיא(하호침)의 역할과 번역

『나비』(하호침)의 문장 속 역할을 이해하는 입장이 둘로 나뉘기는 하지만, 둘 다 타당합니다. 『나비』(하호침)은 명사구([정관사] + [명사])로서 ‘그 예견자들/선견자들(the seers)’로 번역할 수도 있고, 관계절([관계사] + [분사])로서 ‘보는(who see …)’으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및 『새번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예견자들’(혹은 ‘본 사람들’)의 두 그룹을 언급하고, 나머지 역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한 그룹과만 관련됩니다. 『새한글』과 『새번역』이 본문의 구조를 같은 방식으로 보긴 했지만, 『새한글』의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전문인, 즉 נָבִיא(나비), ‘예언자’, נָבִיא[느비에]의 원형)와 נָהָר(호제, נָבִיא[하호침]의 원형)가 함께 나올 때 נָהָר(호제)는 대개 종교적 전문인(『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대개 ‘선견자’)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נָבִיא(나비)와 נָהָר(호제)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두 단어가 유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삼하 24:11 참고). 그렇더라도 『새한글』이 ‘예견자’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원어를 암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2) **אָדָנִי יְהוָה**(느움 아도나이 엘로힘)의 화자

אָדָנִי יְהוָה(느움 아도나이, ‘야훼[여호와]의 말씀’)는 예언서에서 자주 만나는 어구입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 오는데 말씀 중간에 쓰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사 49:18; 암 3:10). 긴 표현인 **אָדָנִי יְהוָה**(느움 아도나이 엘로힘, ‘주 야훼[여호와]의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긴 형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긴 형태 81회, 짧은 형태 4회),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짧은 형태가 주로 쓰입니다(짧은 형태 264회, 긴 형태 11회). 예언서에서 이 표현이 나올 때 이 어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언자의 말인지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역본들을 보면 이 어구를 대개 예언자의 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위에 인용한 역본 중에서는 NET가 그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어 역본 중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אָדָנִי מֹאתִי הָלֶלֶת**(느움 아도나이 엘로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역개정』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새한글』은 줄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집어넣은 삽입구로 처리하였습니다. 『새한글』 덕분에 성경 독자는 원문을 보는 다양한 가능성을 접할 수 있습니다.

3.4. 『새한글』 에스겔 13:16의 가르침

‘선견자’와 ‘예언자’라는 두 용어는 이스라엘 예언의 다양성을 암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초기에 ‘선견자’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예견자’(『새한글』의 용어, 삼상 9:9 참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주로 길흉화복을 알아맞히고 대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발전하면서 ‘예언자’들(특히 책을 남긴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졌듯 크리스천 개인의 신앙도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일신의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4. 히브리어의 어순과 느낌을 살리는 번역(14:6)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لֹכַן אָמַר אֱלֹהִים יִשְׂרָאֵל כִּי אָמַר אֱלֹהִי יְהוָה שָׁבוּ וְהִשְׁבֻוּ מַעַל גָּלוּלֶיכֶם וּמַעַל כָּל-חַטֹּאתֶיכֶם הַשְׁבָוּ נְגִיכֶם:
『개역개정』	그런즉 너는 <u>이스라엘 족속</u> 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u>돌이켜</u>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u>돌려</u>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새번역』	그러므로 너는 <u>이스라엘 족속</u> 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아 말한다. 너희는 <u>회개하여라</u> .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u>돌아서라</u> .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u>돌려라</u> .’
『공동개정』	그러니 너는 <u>이스라엘 족속</u> 에게 일러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u>돌아오라</u> , 너희의 우상을 떠나 <u>돌아오라</u> . 너희가 섬기는 온갖 역겨운 것들에게서 얼굴을 <u>돌려라</u> .
『새한글』	이러므로 너는 <u>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u> 에게 말해 주어라. (예언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 <u>돌아서고 돌이켜라</u> , 너희의 우상들한테서부터! 너희의 온갖 역겨운 것에서부터 <u>돌이켜라</u> , 너희의 얼굴을!’
ESV	Therefore say to <u>the house of Israel</u> , Thus says the Lord God: <u>Repent and turn away</u> from your idols, and <u>turn away</u> your faces from all your abominations.
NET ²	“Therefore say to <u>the house of Israel</u> ,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u>Return! Turn</u> from your idols, and <u>turn</u> your faces away from your abominations.
ZB	Darum sprich zum <u>Haus Israel</u> : So spricht Gott der HERR: <u>Kehrt zurück und wendet euch</u> ab von euren Mistgötzen und <u>wendet</u> eure Gesichter ab von all euren Abscheulichkeiten!
LB	Darum sollst du zum <u>Hause Israel</u> sagen: So spricht Gott der HERR: <u>Kehrt um und wendet euch</u> ab von euren Götzen und <u>wendet</u> euer Angesicht von allen euren Gräueln.
BB	Deshalb sag zu <u>den Israeliten</u> : »So spricht Gott, der HERR: <u>Kehrt um und wendet euch</u> von euren Götzen ab! <u>Wendet euch</u> ab von euren ganzen Schandtaten!«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어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때 『새한글』을 제외한 한국어 역본들은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따라 목적어나 부사어 다음에 서술어를 두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서술어들(‘돌아서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뒤에 부사어나 목적어가 따릅니다. 『새한글』의 어순이 히브리어의 어순에 더 가깝습니다.

(2) 개별 표현

① בֵּית יְהוָה(벨 이스라엘)의 번역

‘이스라엘 족속’(『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새한글』).

② שָׁבוּ וַיִּשְׁבֹּו … דָּשְׁבֹּו …(슈부 워하시부 … 하시부)의 번역

‘돌이켜 … 돌려’(『개역개정』), ‘회개하여라 … 돌아서라 … 돌려라’(『새번역』), ‘돌아오라 … 돌아오라 … 돌려라’(『공동개정』), ‘돌아서고 돌이켜라 … 돌이켜라’(『새한글』).

4.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어순

성서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어순입니다. 영어나 독어도 그렇지만 성서 언어(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의 어순은 한국어의 어순과 정반대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컨대 한국어는 후치사(조사)를 씁니다. 즉, 명사구 다음에 부치사가 나옵니다. 성서 언어와 영어 등은 대개 명사 앞에 부치사가 나옵니다(그래서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한국어는 수식해 주는 관계절이 수식을 받는 명사구 앞에 나옵니다(‘향기가 좋은’ 꽃). 성서 언어와 영어 등은 순서가 반대입니다([선행사] + [관계절]). 문제는 문장 속 단어들의 순서는 화자/저자의 생각의 순서를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성서 언어나 영어 같은 유럽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많은 한국어 번역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원문의 생각의 순서를 일부 포기하고 한국어 어순을 자연스럽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한국어 어순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원문의 생각의 순서를 표현할 것인가? 기존의 한국어 역본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새한글』은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예컨대 에스겔 14:6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고 돌이켜라’와 ‘돌

이켜라’를 문장의 맨 앞에 둠으로써 원문의 어순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도치된 문장은 아무래도 읽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독자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로의 초청을 읽을 때 독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유익할 것 같습니다.

(2) **בֵּית יִשְׂרָאֵל**(벧 이스라엘)

בֵּית יִשְׂרָאֵל(벧 이스라엘)은 에스겔의 특징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흔히 **בְּנֵי יִשְׂרָאֵל**(브네 이스라엘)을 씁니다. 에스겔서는 **בֵּית יִשְׂרָאֵל**(벧 이스라엘)을 더 많이 씁니다 (**בֵּית יִשְׂרָאֵל** 83회, **בְּנֵי יִשְׂרָאֵל** [브네 이스라엘] 11회). 두 표현은 의미가 비슷하지만 형태는 다르므로, 번역도 다르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한글』이 **בֵּית יִשְׂרָאֵל**(벧 이스라엘)을 기준 한국어 역본과 다르게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번역입니다. **בֵּית יִשְׂרָאֵל**(벧 이스라엘)의 본래 의미는 ‘이스라엘의 집’이지만, ‘집’은 ‘집안 사람들’을 대유(代喻)할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번역은 적절합니다.

(3) **שָׁבוּ וְהִשְׁיבוּ ... הַשְׁיבוּ ...**(슈부 위하시부 … 하시부)

『새한글』에서 ‘돌아서고 돌이켜라 … 돌이켜라’라고 번역된 세 단어는 원어에서 어근이 같습니다(어근: **שׁוב**[슈브], ‘돌아오다, 돌아서다’). 첫 번째 단어는 어근 자체가 활용된 형태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어근에 접두사가 붙은 후 활용된 형태입니다. 기호로 나타낸다면 A-A'-A'의 꼴입니다. 즉 첫 번째 단어가 나머지 단어와 조금 다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어는 형태가 같습니다. 따라서 『새한글』의 번역은 기준 역본들보다 원문의 형태를 잘 반영해 줍니다. 『새한글』에서 세 단어는 어근(돌다)을 공유하면서도 첫 번째 단어(돌아서다)와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어(돌이키다)가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문의 느낌을 전해 주는 번역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라는 개념을 뜻하는 독립된 단어는 없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회개’를 표현할 때는 히브리어 **שׁוב**(슈브, ‘돌아오다, 돌아서다’)에서 파생된 형태를 씁니다. 실제로 ‘회개’는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공동개정』과 달리 『새한글』은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서도 ‘회개’를 표현했습니다.

4.4. 『새한글』 에스겔 14:6의 가르침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은 뉘우침과 다릅니다. 뉘우침은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는 것]”이지만(『표준국어대사전』), 돌이킴은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진정한 회개(repentance)는 세 가지 R을 포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뉘우침(remorse)과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restitution)과 내 삶의 개혁(reformation)입니다. 에스겔의 선포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겔 18:32).

5. 타당한 다른 번역 가능성의 제시(43:7)

5.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וַיֹּאמֶר אֵלִי בֶּן־אָדָם אֶת־מִקְוָם פָּסָאי וְאֵת־מִקְוָם כְּפֹתָה רְגָלִי
אֲשֶׁר אַשְׁכַּנְשָׁם בְּתוֹךְ בְּנֵי־יִשְׂרָאֵל לְעוֹלָם וְלֹא יִטְמָא עוֹד
בֵּית־יִשְׂרָאֵל שֶׁם קָרְשִׁי הַמֶּה וּמֶלֶכְיָהּ בְּגִתְּתָמִים וּבְגִתְּתִים מֶלֶכִים
בְּמֹתָם:

『개역개정』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새번역』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 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공동개정』

“너 사람아!”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여기는 나의 옥좌가 있는 자리다. 내 발판이 놓인 자리다. 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 영원히 머물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온 족속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의 기념비를 세워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새한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아, 이곳은 나의 임금자리가 있는 곳이고, 나의 발바닥이 닿는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데 영원히 살 곳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더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임금들이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의 죽은 임금들을 위해 바치는 제물로 더는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ESV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this is the place of my throne and the place of the soles of my feet, where I will dwell in the midst of the people of Israel forever. And the house of Israel shall no more defile my holy name, neither they, nor their kings, by their whoring and by the dead bodies of their kings at their high places.

NET²

He said to me: “Son of man, this is the place of my throne and the place for the soles of my feet, where I will live among the people of Israel forever. The house of Israel will no longer profane my holy name, neither they nor their kings, by their spiritual prostitution or by the pillars of their kings set up when they die.

ZB

Und er sprach zu mir: Du Mensch, das ist die Stätte meines Throns und die Stätte meiner Fusssohlen, wo ich inmitten der Israeliten für immer wohnen werde! Und das Haus Israel wird meinen heiligen Namen nicht mehr unrein machen — weder sie noch ihre Könige — durch ihre Hurerei und mit den Leichen ihrer Könige auf ihren Kulthöhen,

LB

Und er sprach zu mir: Du Menschenkind, das ist der Ort meines Thrones und die Stätte meiner Fußsohlen; hier will ich für immer wohnen unter den Israeliten. Und das Haus Israel soll nicht mehr meinen heiligen Namen entweihen, weder sie noch ihre Könige, durch ihren Götzendifenst und durch die Leichen ihrer Könige, wenn sie sterben;

BB

der zu mir sagte: »Du Mensch, das ist der Ort, an dem mein Thron steht. Hier ruhen auch meine Füße. Hier will ich für immer unter den Israeliten gegenwärtig sein. Das Haus Israel wird meinen heiligen Namen nicht mehr unrein machen — weder durch Hurerei noch durch die Leichen von Königen, die sie an Kultplätzen ablegen.

Das gilt für die Israeliten und ihre Könige.

5.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① 키스이(כְּסָאִי)의 번역

‘내 보좌’(『개역개정』, 『새번역』), ‘나의 옥좌’(『공동개정』), ‘나의 임금 자리’(『새한글』).

② 브콤 캅풀(מְקוֹם כַּפּוֹת רִגְלֵי)의 번역

‘내 발을 두는 처소’(『개역개정』), ‘내가 발을 딛는 곳’(『새번역』), ‘내 발판이 놓인 자리’(『공동개정』), ‘나의 발바닥이 닿는 곳’(『새한글』).

③ 이스라엘(בֵּית־יִשְׂרָאֵל)의 번역

‘이스라엘 족속’(『개역개정』), ‘이스라엘 자손’(『새번역』), ‘온 족속’(『공동개정』),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새한글』).

④ 비즈누탐(בִּזְנוּתָם)의 번역

‘음행하며’(『개역개정』), ‘음란을 피우거나’(『새번역』, 『공동개정』), ‘놀아나지’(『새한글』).

⑤ 브피그레 말케헴 바모탐(בְּפִנְגָּרִי מֶלֶכְיָהָם בְּמוֹתָם)의 번역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개역개정』),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새번역』), ‘죽은 왕의 기념비를 세워서’(『공동개정』), ‘그들의 죽은 임금들을 위해 바치는 제물로’(『새한글』).

5.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מְקוֹם כַּפּוֹת רִגְלֵי) 브콤 캅풀(라글라이)

에스겔 43:7은 이사야 60:13과 정서를 공유합니다. 이사야서 본문을 『새한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바논의 영광이 너한테로 올 것이다. 전나무, 티누스분꽃나무와 잣나무가 다 함께! / 나의 거룩한 장소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이다. / 나의 발을 두는 곳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겠다.’(사 60:13) 두 본문 모두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매우 비슷한 어구 하나가 두 곳에 모두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مְקוֹם כַּפּוֹת רִגְלֵי**(브콤 캅풀라글라이, ‘나의 발을 두는 곳’)과 에스겔서의 **מְקוֹם כַּפּוֹת רִגְלֵי**(브콤 캅풀라글라이, ‘나의 발바닥이 닿는 곳’)입니다. 두 어구의 차이는 **כַּפּוֹת**(캡풀)의 유무입니다. 캡풀은 ‘발바닥’ 혹은 ‘손바닥’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새한글』에서 이 어구를 번역할 때 기존 역본과 달리 ‘발바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사야 60:13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면서 원문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기존 한국어 역본들은 이사야서의 **מְקוֹם רִגְלֵי**(브콤 라글라이)를 에스겔

서의 **מִקְוָם כְּפֹתַת רֶגֶל**(므콤 캅풀 라글라이)와 거의 같게 번역하였습니다(이사야서: ‘나의 발 둘 곳’[『개역개정』, 『새번역』], ‘나의 발이 놓여 있는 곳’[『공동개정』]; 에스겔서: ‘내 발을 두는 처소’[『개역개정』], ‘내가 발을 딛는 곳’[『새번역』], ‘내 발판이 놓인 자리’[『공동개정』]).

(2) פֶּגֶר(페게르)의 의미

בְּפֶגֶר מִלְכִּיהָם בְּמִזְמָהָר(브피그레 밀케햄 바모탐) 속 **פֶּגֶר**(피그레)의 원형인 **פֶּגֶר**(페게르)는 BDB에 따르면 ‘시체’를 뜻합니다. 그러나 HAL/HALOT은 **פֶּגֶר**(페게르)가 ‘시체’ 외에 ‘기념비’와 ‘죽은 자들을 위해 바치는 제물’을 뜻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두 뜻의 용례로 에스겔 43:7을 듭니다. 즉, 에스겔 43:7의 **פֶּגֶר**(페게르)는 ‘기념비’를 뜻할 수도 있고 ‘죽은 자들을 위해 바치는 제물’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개정』이 이 단어를 ‘기념비’로 번역했으므로, 『새한글』의 번역은 기존 역본들의 번역에 다양성을 더해 줍니다.

5.4. 『새한글』 에스겔 43:7의 가르침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임금자리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겔 1장). 역겨운 죄들로 더럽혀진 성전(8장)을 하나님은 그 임금자리를 타시고 떠나셨습니다(10장). 그러나 지금 에스겔서의 마지막 환상(40-48장)을 통해 에스겔은 하나님이 새 성전을 세우시고 성별하시는 과정을 봅니다.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43장). 에스겔서 전체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하신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돌이키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제어>(Keywords)

에스겔, 번역, 새한글성경, 번역의 특징.

Ezekiel, translation, New Korean Translation, features of translation.